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P 317

제1독서(신 명 8, 2-3, 14b-16)
제2독서(고린전 10, 16-17)
복 음(요 한 6, 51-59)

숲 정 이

발행 원 인
천주교 전주교구
사 목 국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⑤ 5098 ⑤ 3201

□ 감 론



배 부르나요?

김 기 수 신부

어느날 아동미사가 끝난 후 주일학교 개구장이 어린이가 큰 눈방울을 굴리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성큼 내게 다가와서

“신부님!”

“왜?”

미사시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얀 빵을 먹으면 배부르나요?

너무 적어서 배부르지도 않고 맛도 없을 것 같아요.

배부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먹어요?

왜 신부님은 큰 것을 먹고 우리는 작은 것을 주나요?

진짜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저 쪼끄만 빵인데...

باط고 청순한 눈동자를 굴리며 또릿 또릿하게 내게 던진 질문물이었다.

이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다. 왜냐면 천진스러운 이 천사같은 어린이 입에서 “왜? 배부르나요?”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볼때 육신의 삶을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피나는 노력, 악까지 범하는 비극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온갖 정력을 쏟고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기에 어린이의 눈에 주님의 몸보다 배부름의 철학이 뇌리에서 더 작용했기에 던진 질문이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육신 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끝없는 영생을 위한 영혼이 있음을 믿고 있는 선택된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한 배부른 빵이 필요하다면 영원한 삶을 위한 빵의 중요성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정말 우리는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 중에서 어느 쪽에 하루 생활에서 더 심혈을 기울였는지, 또 영혼의 빵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 빵을 모시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잊지 말고 그 빵을 열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빵을 소홀히 한다면 배부른 빵을 추구하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분명 영혼의 빵을 소홀히하는 분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혼의 빵을 모시는데,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데 성실하자.

<무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칼은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는 범죄 수사 드라마가 적지않게 소개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포도대장·형사·추적·형사 스타스키와 허치가, 또 한 편에서는 알행어사·수사반장·113수사본부·경찰 초년병이 방영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무서운 범죄가 두꺼번처럼 피어나니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감추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성공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긴박감과 있고 재미를 즐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욱 기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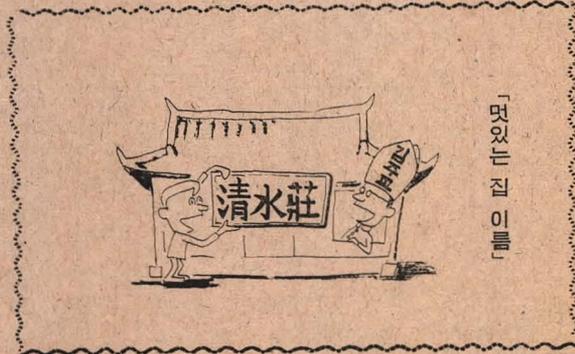
옛그제 무서운 일이 있었다. 소위 <한탕>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겠다고 어린 소년이 경찰관을 중태에 빠트리고만 것이다. 모두들 바쁘게 출근길을 제촉하는 아침에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혹자는 어린아이들을 자극하는 범죄 수사 드라마에 탓을 돌리려 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다. 불나는 것이 두렵다고 불씨를 없앨 수도 없으려니와, 살상의 위험을 막겠다고 총칼을 없애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총칼이나 불씨가 나쁜게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치관이다. 정의(正義)에 대한 인식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평평거리고 살기 때문이다.

우선 먹기는 못감이 달으나,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마태오 26장 52절)

숲 정 이 산 채



「맛있는 집 이름」

「貧民들의 聖女」 데레사 修女

「貧者中の 貧者」를 위해 몸바쳐온 「빈민들의 성녀」 데레사 수녀가 한국에 왔었다. 이미 지난 일이었지만 훈정이 독자들의 청에 의해서 그녀에 대한 신상 몇 가지를 소개 한다.

1979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 공로」로 여성으로서 6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레사수녀는 1910년 8월 27일 유고슬라비아 「스코예프」에서 알바니아계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원래 이름은 「곤사 보자하우 아비스」인 그녀는 12세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 17세때 「로레타」수녀원에 입회 했고 29년에 인도로 파견됐다. 「캘커타」 동부 성마리아 고등학교에서 지리교사로 첫 봉사 활동에 나선 데레사수녀는 비교적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이학교의 생활과는 다른 주위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빈민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비참한 이 가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이리던중 1946년 피정 여행중에 그녀는 「모든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년 봉직한 교장의 지위도 버리고 학교를 떠났다.

데레사수녀는 자신이 해야할 일은 부유층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확신, 그들 속에 뛰어들었다.

속성과정으로 간호학과 이동진료를 배운 데레사수녀는 「너희가 여기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것이 곧 내게 해준것」(마태 25, 40)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그리스도, 혈뺀 그리스도, 그리고 병든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위해 몸바쳐 봉사 해오고 있는 빈민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기도하다.

데레사수녀는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양육하고 미혼모·고아·불구정박아들을 돌봐주고 나환자들을 치료해주는 한편 진료가 끝난 이들의 재생을 위해 「산티나가」(평화의 마을)를 세워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임종의 집」을 마련기도 했는데 그녀는 죽어가는 이들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애써왔다.

데레사 수녀는 71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교황 요한 23세 평화상」을 수상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로투스」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혼탁한 현대사회에서 어둠속을 비추는 한줄기 빛인 데레사수녀. 그녀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합니다」라면서 7旬의 교령에도 불구하고 지칠줄 모르고 뛰고있다. 오늘도 사랑의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

＝금주간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르코 12:31)

담의 일때문에 가슴 아플적이 있나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때문에 애가 타는, 그런 심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나와같은 한 인간이라는 존엄한 입장에서 소중히 활출 알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일, 요는 우리 이웃에게 천사같은 노릇을 할 줄 안다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우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부터가 하늘의 은총임을 늘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위로할 이웃을 참담게 찾기 위해서 이웃에게 관심가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좋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일찌기 인간의 삶의 규범을 사랑으로 제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듯 남에대한 관심을 가지는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또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복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 7:38)” 한 바가지 시원한 냉수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정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主 聖心이여!

박 요 한

스승이시며 주이신 예수여!
원조의 범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육성을 정화시키시고자
사형선교의 능욕을 당하신이여
몸서리 치는 골고타를 오르셨기에
귀양살이의 우리에게
위안의 고통이 되으며
당신께서 초와 쓸개를 맛보셨기에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었나이다.

예언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악행은
당신의 손과 발을 뚫었으며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구원 소명으로
깃통이의 머릿통이 되셨나이다.

오늘도 끝없는 근심에 시달리시는
주 성심이여!
당신을 찾지만 하고
따르기를 주저하는
겁 많고 죄 많은 허약함을
굳센 팔로 잡아 주시고
고통을 당신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③2628
범피도(덕배)·이 마리아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 종 싱크
백 곰 표 쉼 크 주방

(東南綜合 쉼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6900
金 樂 均(요셉)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 (비오)

김병운신부 6월 17일, 「카나다」로 출국

캐나다의 「교포 사목」을 위하여 대기중이던 김병운(베네딕도)신부가 17일 김포공항을 떠나 장도에 올랐다.

진료 봉사의 땀방울,

—대학병원 아가다회—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운 희생과 봉사를 남모르게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한 작은 모임이 있다. 전북대 의과대학 부속병원내 신자 의사 간호원 모임인 「아가다회」는 그동안 2주에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성서를 공부하면서 신앙을 다지고 있다. 특히 매월 1회 외지 본당이나 공소를 찾아 무료 진료를 실시해 왔었다. 지난주(14일)에 한들본당 진료봉사 모습을 지켜본 윤정이 기자는 가슴 뿌듯한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신앙적 모임을 통해 성서를 공부하고 내과, 치과, 피부과등에 대한 봉사 진료에 남모르게 땀을 흘려온 아가다회는 안득수내과 과장님(현재 미국 유학중)을 중심으로 회장 박찬운(치과)신생님 외에 30여명의 신자로 구성된 의사, 간호원들의 모임으로 5년전부터 다져온 모임이라다.

조그만 희생에 기쁨을 느끼는 아가다회원 모두에게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을 기원하면서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한다.

중앙·월명동 본당의 경로(敬老)잔치

정성어린 효심으로 하느님을 감복케 할 일들이 그칠줄 모른다.

지난 7일에는 군산 월명동(주임신부 이재후) 본당에서 청년회 주최로, 12일에는 전주 중앙(주임신부 문정현) 본당의 착한 사마리아회 주관으로 경로잔치가 정겹게 열렸다.

양 본당은 연례적으로 경로잔치를 해 왔는데 회갑 넘은 노인들의 즐거운 하루였다고 한다.

중앙 본당의 착한 사마리아 회원은 50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애·경사와 병자 돌보기, 구호사업등 주위의 귀감이 되고있다 한다. 월명본당의 청년회원들은 이번 잔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폐품수집등의 역할을 보였고 주일학생들의 애교와 중·고생들의 노래 청년들의 연극등으로 노인들과 하나가 되어 기쁨에 벅찬 하루였다고 한다.

□ 사제 양성 후원기금 교구집계 현황

사순절동안 각 본당에서는 사제 양성 후원기금을 위한 적금에 열성을 기우렸다. 모든 본들께 감사 드리며 6월 15일까지의 교구집계를 아래와 같이 발표 한다.

※ 미 현남 본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단위 : 원)

| | | | |
|-----------------|-----------------|-----------------|-----------------|
| 김 정 제 (226,065) | 부 안 (85,050) | 수 료 (102,500) | 신 태 인 (138,210) |
| 정 음 (314,470) | 등 울 동 (581,430) | 오 룡 동 (550,000) | 월 명 동 (736,370) |
| 산 산 (355,000) | 중 양 (629,246) | 서 학 동 (300,357) | 파 티 마 (222,852) |
| 자 자 (396,641) | 노 중 동 (288,754) | 윤 정 이 (210,000) | 전 동 (445,000) |
| 원 원 (225,367) | 순 창 (50,000) | 임 실 (215,000) | 상 관 (209,000) |
| 남 수 (120,000) | 한 들 (160,728) | 용 안 (165,100) | 황 등 (244,730) |
| 기 타 (6,170) | 합 계 (6,978,04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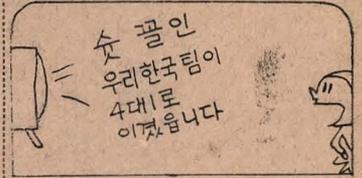
※ 80년도까지의 미납금 서학동(1,241,967)

※ 김재덕 주교대, 주소·전화번호 변경

○ 주소—전주시 교동 1가 129-3 2층 6반

○ 전화—① 3 5 3 1

요심이 (411) 김병운



□ 이전 개업
※ 교우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범모약국

김 영 춘 (아오스딩)
전화 ③ 5 3 1 9



전고 ← → 팔달로

↓ 구 역 전
가 톨 리 타
센 타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집)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배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군산 토용첸타(한일은행 뒤)

전화 ③ 1 6 3 6
전주 전동 대건다방
전화 ② 9 7 4 0
유 석 증(스테파노)

신부화장·파마·교우분들
특별우대

데레사 미용실

경기전 앞 ⑥ 1 7 0 3
범 데 레 사(순례)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1지구 교리교사회 모임 : 6월 21일 12시 김제분당에서
2. 5지구 학생회 임원선출 : 회장-박재현(남원), 부회장-(남)김은수(상관), (여)문은희(순창)
총무-유순이(임실), 섭외부-장석수(남원)
3.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학생대회 : 일시-7월 22일~25일(3박 4일),
장소-충남진산→전주 전동(도보 묵상 성지순례), 주제-순교 신앙의 뿌리를 찾자
참가비-3,000원, 접수-6월 30일까지 연합회
4. 형제회 전주지구 1일피정 : 21일 오전 9시~오후 5시, 중앙성당에서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 회비-1,000원
4. 서석기·문규현 신부 영명 축하식(6월 29일)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민
보좌 신부 박인규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양로원
2. 방지거 삼회 피정 : 6월 21일 오전 9시~4시 30분까지
장소-중앙성당
3. 어머니 합창단 임원 개편 : 단장-서송석,
부단장-이은남, 서기-이정자, 회계-한정순,
섭외-박노옥·추남순·이순일
4. 영세 준비자 교육 일정표
① 종합교리-6월 16~19일, 23~24일
오전반-10시30분, 오후반-8시 ② 시험 및 참고-
25~26일 ③ 영세일자-6월 28일 오후 7시 30분미사
5. 평일 대축일 미사시간 변경 (24일, 26일, 29일)
오전 6시미사가 10시 30분(오
예) 24일-요한세자 대축일 10시 30분,
6. 박인호 신부님 영명축일 : 6월 29일(월)
우리 가족의 정성을 모아 예물로 드립니다
7. 어린이 영세 : 매월 마지막 <금> 26일 어머니미사후
8. 수녀님 피정 : 유치원 방 수녀님께서 18일부터 25일
까지 피정을 하고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9. 착한 사마리아인회 월례회 : 6월 24일 오후 2시
회합실 회원 전원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516,535원
감사헌금 : 교사 정로사리아 30,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은혜의 밤 : 26일<금> 저녁 8시부터
2. 베소라 성서 감의 : 매주<화> 저녁 8시~10시
3. 수녀님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 매주<월> 오후 2시
4. 금주의 성경 읽기 : 구역의 열왕기 하편 전체
5.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 매주<금> 오후 8시부터
6. 미사시간 안내 : 새벽미사-매일 새벽 6시, 저녁미
사-매일 저녁<화>, <금>, <토>외 7시30분, 어머니미
사-<화> 오전 11시, 기도회미사-<금> 오후 3시, 노
인미사-<토> 오후 2시30분, 중·고등학생 미사-
<토> 오후 6시, 인후아파트 특전미사-<토> 오후 4시
주일미사-새벽 6시, 오전 9시(어린이),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335,62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예비자 교리 : 일요일 오전 공식미사후-보좌신부님
지도 수요일 저녁 8시-보좌신부님 지도
2. 성서 연구 모임(영신도들을 위한 성서 해설)
금요일 저녁 8시, 신구약 성서 생가집, 필기도구차함
3. 주일학교에 많은 어린이 보내주세요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미사
4. 중·고생 지구 체육대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5. 형제 자매님을 한가지 활동 단체에 꼭 가입 바람
□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은 6월 29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94,79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홍택
보좌 신부 김희봉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2. 영명축일 : 김베드로 보좌신부님 (6월 29일)
축하식-28일(주일) 공식미사후 축하연-29일 12시

나누어 드린 봉투에 정성껏 영적 물적 예물을 사루
실에 내주시기바람(25일까지)

3. 가정방문 : 23일<화>-다가1반, 교사2반,
24일<수>-태평4·5·7반, 25일<목>-태평6반, 기타
4. 미사시간 엄수 :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13,8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별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할머니회 모임 : 공식미사후
2. 학생미사(중·고생) : 일요일 오전 8시30분
3. 병자방문 : 23일<화> 오전 9시
4.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후
5.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강기호 ②김낙완,
신자들의 기도-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 183,8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축! 영명 : 이바오로 주임신부님의 영명 축하식
6월 28일 공식미사후
2. 오늘은 친목의 교회주일 침묵의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3. 성모회 월례회 : 6월 21일 공식미사후
4. 성서연구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많은 참석 바람
5. 중·고등학생 체육대회에 협조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귀배,
독서-①양병철 ②신종선, 기도-이종상
□ 지난주 봉헌금 : 270,34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업
보좌 신부 박종두
사도 회장 박종두

1. 축! 영명 : 분당 신부님(베드로) 영명축하식<6월
28일> 공식미사후
2. 꼬미시움 : 매주 2시 성화회 : 공식미사후
3. 울드레아 야유회 : 28일 9시, 운암 저수지(막은땀),
회비-3,000원
4. 글라라중회회 : 다음주 오후 1시30분
5. 구역 회합 일정
6월 23일 오후 2시-서교동2구(조수도), 23일 오후
2시-전동2구(조영순), 24일 오후 8시-동완산동 2구
(김백합) 25일 오후 8시-다가동(이영순),
26일 오후 2시-풍남동2구(송재진),
26일 오후 2시-풍남동3구(이상현)
6. 차주전례
아침 해설-박종주, 독서-①최병래 ②법덕배
공식 해설-김영주, 독서-①이영태 ②최병남
저녁 해설-정양수, 독서-①이승호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477,230원
사제양성 후원금 : 131세대 445,0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영세식(유아세례 포함) : 오늘 오후 2시
대부·모는 1시30분까지 참석바람
2. 중·고생 4지구 친목 체육대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영세식후 미사와 영세자 환영 연회 있습니다
4. 교황주일(다음주) : 교황님을 위한 기도와 성금을...
5.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6. 남녀 청년들은 "사도의 모후" pr. 가입합니다
7. 제대 꽃 기증 : 박재만(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7,650원 교무금 : 54,000원